

#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日, 저출산·고령화 ‘두 토끼’ 함께 잡는다	도쿄
문화·관광	5	5개 테마로 구성 ‘2020 액션·레가시계획’ 추진	도쿄
산업·경제	7	미래산업기금 활용해 제조업 첨단화 지원	빅토리아
	9	올해 법정 최저임금 작년보다 8.4% 인상	상하이
환경·안전	10	자동차 이산화질소 배출규제 중점 시행	원헨
도시계획·주택	13	‘육아세대에 적합한 주택’ 인정제도 도입	도쿄
	15	Airbnb 등록 일반인에 임대숙소 제공기간 제한	파리
뉴스인사이드	17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외



## 日, 저출산·고령화 ‘두 토끼’ 함께 잡는다

‘1억 총활약사회’ 시행…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 유지

일본 도쿄都 / 사회·복지

-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며 모두가 가정·직장·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인 ‘1억 총활약사회(一億総活躍社会)’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일본 1억 총활약 계획(ニッポン一億総活躍プラン)’을 2016년 6월 발표
  - 일본 정부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향을 제시
  - 주요목표
    - ‘경제 성장’ 부문은 2020년까지 GDP 600조 엔(6,800조 원) 달성
    - ‘출산율 증가 및 육아지원’ 부문은 ‘합계 출산율’ 1.8명 달성
      - 2015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46명
    - ‘고령자를 위한 안정된 사회 보장’
- 경제 성장
  - 투자촉진과 생산성 혁명 실현
    - 법인세율을 32.11%에서 20%대로 인하 검토
    - 기업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확대와 임금인상 등을 지원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증진
    -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 3% 정도로 하고 GDP 성장률을 고려하여 인상
  - 여자·청년·고령자·장애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



‘1억 총활약 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들과의 간담회 모습

- 출산율 증가 및 육아 지원

- 육아·간병 환경 조성

- 보육·간호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 소규모 어린이집 조성과 빈 교실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위탁보호 서비스 촉진
- 미니 보육시설 확충과 기업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서 500억 엔(5,630억 원)을 편성
- 미니 보육시설은 도심 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0~2세 아이들을 돌보는 곳으로, 6명만 되어도 개원이 가능
- 미니 보육사업자에게 건축비의 75%(정부 50%, 지자체 25%)를 지원
- 교사 처우 개선
- 상환면제 학자금 대출: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학생에게 상환면제가 가능한 월 5만 엔(56만 3,000원)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
- 재취업준비금 대출: 휴직자의 복직을 돕기 위한 20만 엔(226만 원)의 재취업준비금 대출제도를 신설
- 상환면제 대출제도 신설: 어린이집이 보육보조자를 고용할 경우 295만 엔(3,320만 원)의 상환면제가 가능한 대출 도입

- 모든 아이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한부모 가정과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지원
- 무상 유아교육의 확대: 저소득 가구의 둘째 아이는 반값, 셋째 아이부터는 무상으로 유아교육 제공
- 방과 후 아동의 거처 마련 지원: 아이의 생활교육, 학습지원, 식사제공 등도 함께 실시
- 장학금 제도의 확충
- 가정의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 또는 전문학교 등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확충
- 저소득가구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무이자 장학금의 성적기준을 대폭 완화

- 여성 활약

- 육아 등으로 휴직이나 퇴직한 여성이 쉽게 복직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권장 활동 시행

-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 여성 리더 육성 시범프로그램의 보급, 임원 후보 단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더 육성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
- 결혼 지원
    - ‘결혼 신생활 지원사업비 보조금’ 제도 신설
    - 연간 총소득이 300만 엔(3,380만 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이사 비용 등을 최대 18만 엔(203만 원) 한도에서 지원
    - 지원금의 75%는 정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 청년세대나 육아세대가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빈집이나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지원시스템 구축
  - 젊은이·육아세대 지원
    -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육아세대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
    - 지속적인 불임치료 지원
  - 3세대 거주환경 조성
    - 3세대 이상의 대가족이 서로 도와가며 육아를 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조성 and 리모델링 지원
- － 간병 이직 제로(0) 실현
- 간병 환경 조성
    - 보육 및 간호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원 마련
    - 간병복지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의 학비면제 혜택 확대
    - 가족이 고령자를 간호할 때 쉽게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 간병휴직 급여(현행 월급의 40%)를 육아휴직(67%) 수준으로 상향
    - 2017년 봄부터 고령층의 간호를 담당할 간호인력의 월급을 1만 엔(11만 원) 인상
  -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시행
    -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낮은 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3만 엔(33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

- 고령자의 이용 수요에 대응한 간병 서비스 기반 확보
  - 양로시설 50만 명 분 확충

<http://www.kantei.go.jp/jp/headline/ichiokusoukatsuyaku/>

<http://xn--rhq6s0x729p.net/lifestage/?p=3333>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01655.html>

<http://www.kantei.go.jp/jp/singi/ichiokusoukatsuyaku/pdf/plan3.pdf#page=10>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suikai15/dl/2015toukeihyou.pdf>

<http://www.kantei.go.jp/jp/topics/2016/ichiokusoukatsuyaku/gaiyo20160118.pdf>

# 문화·관광

## 5개 테마로 구성 ‘2020 액션·레가시계획’ 추진

일본 도쿄都 / 문화·관광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경제발전과 풍요로운 삶의 실현 등의 새로운 가치를 후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쿄 2020 액션&레가시 계획 2016(東京2020 アクション&レガシープラン2016)’의 중간보고서를 2016년 1월 공표
  - 이 계획은 ‘스포츠·건강’, ‘마을만들기·지속가능성’, ‘문화·교육’, ‘경제·테크 놀로지’, ‘전국·세계로 홍보’의 5개 분야로 구성
  - 분야별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스포츠·건강
  -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회 실현
    - 지역 스포츠클럽 등을 활용한 평생 스포츠 진흥
    - 스포츠 자원 등을 활용한 스포츠 투어리즘의 활성화
  - 선수가 지역을 위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선수가 지역의 스포츠 진흥 및 스포츠 투어리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스포츠·건강 관련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개발



도쿄 2020 액션&레가시 계획의 향후 일정

- 마을만들기·지속가능성
  - 선수촌 등의 도시공간 조성
    - 민간사업자의 노하우를 활용한 선수촌 조성
    - 선수촌을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모델로 구축
  - 기후변화대책 추진 및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 재생가능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 자원관리 및 3R(Reduce, Reuse, Recycle) 추진
    - 메달 제조 등에 도시광산의 금속 사용 검토
    - 경기장에서 재생재료 활용
- 문화·교육
  - 차세대 육성과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
    - 큐레이터나 아트 디렉터 등 문화예술 관련 인재 육성
    - 디자인 시티 프로젝트 등의 시행
  - 일본문화를 세계 각지로 전파하고 국제교류를 추진
    - 국내외의 예술가를 유치하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사업 지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작품활동을 전개하는 장애인 아트 프로그램 시행
- 경제·테크놀로지
  - 의료와 간병 등의 기술력 홍보
    - 웨어러블 기기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선진 의료서비스 시행
  - 편리한 결제 플랫폼 구축 등 금융 인프라 정비
  - 스포츠와 ICT의 융합
    - ICT를 활용해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 전국·세계로 홍보
  - 관광객, 기자, 블로거, 유튜브 제작자 등 다양한 사람이 도쿄올림픽과 일본의 매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거점 조성

<https://tokyo2020.jp/jp/games/legacy/items/legacy-progressreport.pdf>

<https://tokyo2020.jp/jp/games/legacy/>

# 산업·경제

## 미래산업기금 활용해 제조업 첨단화 지원

호주 빅토리아주 / 산업·경제

- 호주 빅토리아주는 제조업의 첨단화와 숙련직의 고용창출 등을 통해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출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미래산업 제조업 프로그램(Future Industries Manufacturing Program)’을 2015년 10월부터 시행
  -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2015년 설립한 ‘미래산업기금(Future Industries Fund)’이 운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
  - ‘미래산업기금’은 고성장 잠재력이 있는 의료기술 등 6개의 산업분야를 선정·지원
- 배경
  - 빅토리아주에는 2014년 현재 약 2만 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전체 고용인원은 25만 명임.
  - 제조업은 주 경제에 275억 호주달러(24조 원) 상당의 효과 생산
- 지원 절차
  - 1단계는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자료 제출
    - 신청 사업에 대한 소개와 신청업체의 신청자격 증명
    - 신청 사업이 프로그램의 목표와의 부합성
    - 신청 후 9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 통보
  - 2단계는 신청업체의 재정 공동부담 능력 확인 및 사업계획 심사
    - 신기술 도입과 공정 첨단화의 영향력
    - 향후 마케팅 계획
    - 정부지원금의 필요성 등
- 심사기준
  - 고용과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
  - 주 경제에 가져다주는 혜택
  - 사업수행 능력



-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
- 지원 내역
-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25%, 최대 50만 호주달러(4억 4천만 원)를 지원
  - 기업도 프로젝트 비용의 75%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세부 지원 내역
    - 제품의 생산공정 개선에 필요한 자본설비 구입
    - 최첨단 자동화 공정 및 시제품 제작기술 도입
    - 시제품 테스트 및 평가
    - 공급망 개척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통상적인 시설 및 장비 교체, 연구개발, 운영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사례 소개
- 1987년 설립된 ‘서던 크로스 세라믹’社로 직원은 43명
  - 지원 금액은 20만 호주달러(1억 7,600만 원)
  - 지원금의 활용
    - 디지털인쇄기 구매
    - 15명의 신규직원 채용
    - 기존 직원 중 14명은 생산과정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로운 업무로 재배치
- 기타사항
- 지원금 수령 후 18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함.
  - 사업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공식평가에 참가해야 함.

<http://www.premier.vic.gov.au/funding-for-new-manufacturing-jobs-in-mulgrave/>

<http://www.business.vic.gov.au/support-for-your-business/future-industries/future-industries-manufacturing-program>

## 올해 법정 최저임금 작년보다 8.4% 인상

중국 상하이시 / 산업·경제

- 중국 상하이시는 2016년 3월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本市最低工资标准的通知)’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의 기준을 공지
  - 2016년 상하이시의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8.4% 인상
- 2016년도 최저임금 기준
  - 전일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2,190위안(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70위안(3만 원) 인상
  - 파트타임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9위안(3,370원)으로 전년보다 1위안(180원) 인상
  -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
    - 근로자 개인의 사회보험금과 주택공공적립금 등은 사업장이 별도로 지급해야 함.
    - 야간근무, 고온, 저온, 유독 및 유해 등의 특수근무환경 수당 등
- 기타사항
  - 중국은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투자 감소와 탈 중국 현상이 이어짐.
  -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기업의 탈 중국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고 있는 추세임.
  - 상하이시의 최저임금은 기업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이 다소 둔화됨.
  - 상하이시의 최저임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임금을 동결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지난 6년간 연평균 13% 인상
  - 상하이시는 올해 1월부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요율을 2.5%포인트 하향하기로 결정
  - 이번 조정으로 상하이시 소재 기업들은 연간 사회보험 비용으로 135억 위안(2조 4천억 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http://www.12333sh.gov.cn/201412333/xwzx/zxdt/201603/t20160331\\_1243615.shtml](http://www.12333sh.gov.cn/201412333/xwzx/zxdt/201603/t20160331_1243615.shtml)

<http://www.southmoney.com/touzilicai/qita/201604/534792.html>

<http://shanghai.xinmin.cn/msrx/2016/03/31/29762630.html>

<http://www.kuaiji.com/news/3137813>

# 환경·안전

## 자동차 이산화질소 배출규제 중점 시행

독일 뮌헨市 / 환경·안전

- 독일 뮌헨市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의 이산화질소 배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뮌헨의 청정한 대기유지 계획(Münchner Luftreinhalteplan)'의 제6차 수정계획을 2015년 12월 발효
  - 이 계획은 연방법 및 바이에른 주법에 따라 2004년부터 수립·실행하고 있으며 대기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음.
- 배경
  - EU는 대기질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저감에 초점을 맞춘 '유럽의 청정한 대기를 위한 지침'을 제정
  - 뮌헨시의 자동차 대기가스 배출량은 EU 지침과 연방법의 기준치를 상회
- 주요 실행계획
  - 1) 교통환경 조성
    - 대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여건과 운전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시행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고려해 '뮌헨시 도시교통 개발계획'을 재조정
      - 버스정거장의 위치 조정 등 버스 운영방식 개선
    - 도심지 교통환경의 개선
      - 보행자 전용지역 확대
      - 대중교통 노선의 최적화
      - 일방통행로 확대
      - 자전거의 접근성 향상 및 최적화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등
    - 도시 내 화물운송 환경의 최적화
      - 우편배달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

- 화물운송용 자전거 도입 등

## 2) 환경존 설정

- 이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해 환경존 조정
  - 도심의 특정지역에 기준미달 차량의 통행 제한
  - 통행제한 지역 내의 대중교통 확충과 우회로 확보 조치도 함께 시행
- 기존의 환경존 내 차량운행에 대한 규제 강화
- 도심 내에 ‘차 없는 지역’을 설정

## 3)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향상

-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의 편의성 개선
- 대중교통과 자가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강화
  - 자전거를 지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확대
  - 카셰어링에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하나의 승차권으로 대중교통과 대여자전거, 카셰어링,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중교통 이용시스템 도입
-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홍보
  -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이용안내 홍보
  -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교육 등
-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노선의 최적화를 통한 자전거 이용 촉진
- 카셰어링을 신고한 차량 소유자에게 각종 수수료 감면과 주차공간 제공 등의 혜택 부여

## 4) 친환경 장비 사용

- 시의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고 기존차량에 배기가스 저감 장비를 장착
- 전기자동차의 이용 촉진
-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설장비의 사용 촉진을 위해 친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
- 뮌헨시 소재 터널의 공기정화장치 및 소음방지장치의 개선
- 1970년대 초반부터 운영해 온 노후화된 가스터빈의 가동 중지

## 5)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억제

- 뮌헨 가연물질 규정의 강화
  - 2019년부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의 배출 기준치를  $\text{m}^3$ 당 0.04g, 이산화탄소의 배출 기준치를  $\text{m}^3$ 당 1.25g으로 조정
  - 배출 저감 사업장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
- 디젤차량의 속도규제를 통한 이산화질소 배출 억제
  - 디젤차량이 50~60km/h로 주행할 때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간별 속도제한을 시행
  - 이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소음저감 효과도 기대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Referat-fuer-Gesundheit-und-Umwelt/Luft\\_und\\_Strahlung/Luftreinhalteplan.html](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Referat-fuer-Gesundheit-und-Umwelt/Luft_und_Strahlung/Luftreinhaltepla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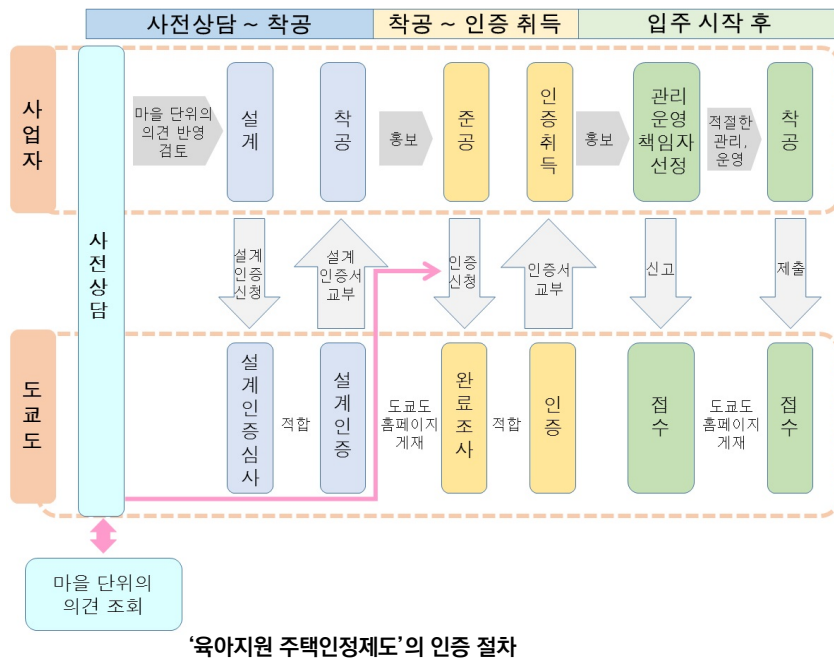
[http://www.muenchen.de/rathaus/dms/Home/Stadtverwaltung/Referat-fuer-Gesundheit-und-Umwelt/Dokumente/Luft\\_und\\_Strahlung/Luftreinhalteplan/6\\_fortschr\\_lrp/6.%20Fortschreibung%20des%20Luftreinhalteplans.pdf](http://www.muenchen.de/rathaus/dms/Home/Stadtverwaltung/Referat-fuer-Gesundheit-und-Umwelt/Dokumente/Luft_und_Strahlung/Luftreinhalteplan/6_fortschr_lrp/6.%20Fortschreibung%20des%20Luftreinhalteplans.pdf)

## 도시계획·주택

### ‘육아세대에 적합한 주택’ 인정제도 도입

일본 도쿄都 / 도시계획·주택

- 일본 도쿄都는 육아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촉진과 젊은 부부가 육아에 적합한 주거환경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쿄 도지사가 인정·공표하는 ‘육아지원 주택인정제도(子育て支援住宅認定制度)’를 2016년 2월 수립
  - 이 제도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주택의 면적과 안전성, 적절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심사하여 도쿄 도지사가 우량주택으로 인정·공표하는 것
- 우량주택의 요건
  - 분양 또는 임대 주택
  -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면적이 50㎡ 이상(단, 거실, 식당, 부엌 등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주택은 40㎡도 가능)
  - 우량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에서 요구하는 62개 필수항목과 32개 선택 항목 중 12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주요 인정기준

- 입지
  -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 등의 주변에 입지
  - 보육시설, 초등학교, 아동클럽 등의 주변에 입지
  - 의료시설의 주변에 입지
- 육아지원시설과 서비스 제공
  - 육아지원시설, 어린이 놀이터, 야외 공간 등의 보유
  - 보육시설과 연계한 육아상담, 임시 탁아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과 연계한 야간진료 및 방문 진료
  - 탁아 등의 방문 보육서비스 제공
- 관리·운영
  - 입주 요건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지속적인 육아지원 관련 정보 제공
  - 거주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의 지속적인 홍보
  -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거주자 간의 교류와 지역주민과의 교류기회 창출

- 인증주택의 혜택

- 구매자나 임대희망자가 다른 주택과 비교할 때 판단 기준이 됨.
- 입주자 모집광고나 판매광고에 인증마크를 활용함으로써 광고 효과 및 신뢰도 향상 기대
- 도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및 정보 제공으로 주택의 인지도 향상
- 자치구 혹은 마을의 제도에 따라서 일부 조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종합설계제도 및 아파트 재건축법을 활용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juutaku\\_seisaku/pdf/child-care-seido\\_02.pdf](http://www.toshiseibi.metro.tokyo.jp/juutaku_seisaku/pdf/child-care-seido_02.pdf)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juutaku\\_seisaku/pdf/child-care-seido\\_01.pdf](http://www.toshiseibi.metro.tokyo.jp/juutaku_seisaku/pdf/child-care-seido_01.pdf)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juutaku\\_seisaku/child-care-seido.html](http://www.toshiseibi.metro.tokyo.jp/juutaku_seisaku/child-care-seido.html)

## Airbnb 등록 일반인에 임대숙소 제공기간 제한

프랑스 파리市 / 도시계획·주택

- 프랑스 파리市는 숙박공유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와의 협약을 통해 2016년 4월부터 일반인이 자신의 집을 연간 120일 이상 관광객에게 단기로 임대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합의
  - 이번 조치로 파리의 경제적 이해와 파리 주민들의 과외소득 확보, 호텔업자들의 영업 보호라는 이해관계가 절충된 규제가 마련됨.
- 배경
  - 호텔사업자의 보호
    - 2015년 1월 이후 Airbnb를 통한 일반인들의 관광용 단기임대 사업이 큰 인기를 끌면서 파리 호텔사업자들은 영업상 손해를 봄.
    - Airbnb를 통해 하룻밤에 제공되는 숙박상품이 5만여 개에 달함.
  - 일반주택이 단기임대용 숙소로 전용되는 부정사례 방지
    - 단기임대로 인한 소득은 일반 거주용 임대비의 2~3배임.
    - 단기임대 사업의 활황으로 2만 호의 주택이 일반 임대시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
    -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의 20%가 단기임대용 숙소로 전용됨.
- 협상 내용
  - 임대인이 120일 이상 예약을 받으면 Airbnb에서 파리로 통보
  - Airbnb는 숙박시설 이용자들에게 1인당 하루 0.83유로(1,100원)의 관광세를 걷어 파리에 납부
  - 관광용 단기임대 숙소의 가격을 상향 조정
- 임대사업 조건
  - 일반인이 해당 주택에 연간 8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서 Airbnb를 통해 단기임대 광고를 내면 영업허가는 불필요
  - 그러나 연간 120일 이상 합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갖춘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존주택 대신 동일구(區)에 임대용 주택을 마련해서 파리의 임대용 주택 수를 유지하는 경우
- 본인이 보유한 영업용 사무실이나 상점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동일구에서 제3자의 영업용 공간을 구입한 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 불법 임대사업자로 간주되면 구내 동일 면적의 임대료에 준하는 벌금이 부과됨.

<http://www.lesechos.fr/industrie-services/immobilier-btp/021807844984-airbnb-et-paris-trouvent-un-acord-pour-faire-respecter-la-reglementation-1210733.php?fcKVJ1WbgHvYY6U3.99>

<http://www.paris.fr/actualites/tourisme-airbnb-va-collecter-la-taxe-de-sejour-2835>

<https://www.airbnb.fr/help/responsible-hosting>

[http://www.paris.fr/services-et-infos-pratiques/urbanisme-et-architecture/demandes-d-autorisations/exercer-une-activite-dans-un-logement-172#locations-meublees-touristiques-ce-qu-il-faut-savoir\\_12](http://www.paris.fr/services-et-infos-pratiques/urbanisme-et-architecture/demandes-d-autorisations/exercer-une-activite-dans-un-logement-172#locations-meublees-touristiques-ce-qu-il-faut-savoir_12)

##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미국 뉴욕市
  - 영국 런던市
  - 싱가포르 싱가포르市
  - 중국 상하이市
-

#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뉴욕

- 일대일 상담 등 여성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 개설 2016.05.04
  - 뉴욕시는 기업가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 기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함. 일대일 상담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교육을 통해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 기업가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원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26-16/mayor-de-blasio-launches-new-program-promote-credit-building-low-income-immigrant-women>
- ‘안전 작업환경 조성·고용안전 보장’ 임신부 인권 보호 지침 발표 2016.05.06
  - 뉴욕시는 인권법에 따라 임신부의 직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and 고용안전 보장을 위한 인권 보호 지침을 발표함. 임신·출산기간 중에 임신부의 고용안전을 보장하고, 임신부에게 건강관리 및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36-16/mayor-de-blasio-stronger-pregnancy-protections-the-workplace-housing-public-spaces>
- 브루클린 육군 터미널에 산업·운송 센터 조성 2016.05.11
  - 뉴욕시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브루클린 육군 터미널에 산업·운송 센터를 조성하기로 함. 뉴욕시민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뉴욕시 전역의 터미널과 연계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46-16/mayor-de-blasio-opening-new-brooklyn-workforce1-industrial-transportation-career>
- 시민 고용기회 증대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 2016.05.18
  - 뉴욕시는 시민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기로 함. 기술 교육기관 수와 기술 교육기관 내 교육 인원수를 늘리고, 취업 연계를 확대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65-16/mayor-de-blasio-expanded-tech-talent-pipeline-train-1-700-new-yorkers-each-year-for>

## 런 던

- 저공해 배출 지역 확대 등 대기오염 개선 계획 발표 2016.05.13
- 런던시는 대기오염에 따른 런던시민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개선 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저공해 배출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런던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추가 요금을 부과함. 또한 대형 차량의 저공해 기준을 수립하고 저공해 배출 버스 운행을 변두리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bold-plans-to-clean-up-londons-toxic-air>

- 자전거 이용자 안전·편의 개선 계획 발표 2016.05.20
- 런던시는 런던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할 계획을 발표함.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고 도로 폭을 넓히며, 자전거 도로와 공공공간을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게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pledges-safer-easier-cycling-0>

- ‘야간 근로자·관광객에 교통편의’ 주말에 지하철 24시간 운행 2016.05.23
- 런던시는 야간 근로자와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주말에는 지하철을 24시간 운행하기로 함. 센트럴 노선과 빅토리아 노선에 우선해서 시행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night-tube-services-will-launch-on-19-august>

## 싱 가 포 르

- 정보통신기술 부문 전문인력 양성 기구 설립 2016.05.05
- 싱가포르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개발기구를 설립함. 이곳은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업체와 연계하여 고용 기회를 제공함.

<https://www.gov.sg/news/content/today-online-250-job-seekers-to-benefit-from-professional-courses>

- **교통사고 줄이려 시내버스에 지능형 카메라 센서 설치** 2016.05.06
- 싱가포르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에 지능형 카메라 센서(Mobileye)를 설치하기로 함. 지능형 카메라 센서를 통해 버스 운전자에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거리와 속도 등의 정보를 제공해 교통사고를 예방함.

<https://www.gov.sg/news/content/sbs-buses-go-high-tech-to-look-out-for-road-users>

- **자전거 편의시설 있는 건축물 건설 땀 인센티브 제공** 2016.05.11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건설 과정에서 자전거 주차장, 샤워·탈의시설 등의 편의시설 계획을 포함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함. 인센티브의 세부사항은 현재 검토 중임.

<https://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developers-to-get-incentives-to-provide-cycling-facilities>

## 상 하 이

- **쑹장지구에 과학기술 혁신 허브 조성 방안 발표** 2016.05.25
- 상하이시는 쑹장지구 내 과학기술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한 제조산업과 과학기술 향상 방안을 발표함. 상하이시는 쑹장지구 내에 혁신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기술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회사 설립 비용과 연구 개발 및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2883.html>

- **국제적 브랜드 구축 등 서비스 산업 육성 계획 발표** 2016.05.31
- 상하이통상위원회는 국제적 브랜드를 구축하는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서비스 산업 부문별로 서비스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서비스 기업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기업 개발을 지원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2946.html>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싱가포르,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